

인간문화재 지상법석

# “행하면 우리도 자유인”

## “현대인들 출생순간부터 우주의 氣 어머니사랑 느껴야 할 자유 억제당해”

의 생명체라면 내가 속한 사회는 더 큰 나, 대아(大我)란 말입니다. 내 손에 상처가 생기면 온 몸이 고통을 나눠 갖듯이 우리 사회의 어느곳에 병이 생기면 온 사회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소아(小我)이면 내가 우선 누리고 이루어야 할 자유는 소자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그것은 불자들이 갈구하는 해탈성불입니다. 부처님을 대자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분이기에 대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불자들도 온갖 번뇌와 생로병사의 고통과 육도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공부하고 수행하고 선입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도 대자유인이 됩니다. 대자유를

생명체가 있는 한 그 본래면목은 그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본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자유를 굴절시키고 그 굴절된 자유를 굴절된 지 모르고 추종하다 보니 세상은 험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중의 으뜸가는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몸을 받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어느 순간의 선덕으로 갑자기 받은 형상이 아닙니다. 무수한 과거생의 선덕들이 쌓이고 쌓여서 받은 귀한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을 잘 운전해서 다음생은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몸을 잘 운전하는 것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유라는 음식과 보약을 잘 쓰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소아의 소자유를 잘 쓰면 대아의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

니가.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일은 어찌보면 갖태어난 아기가 수심년을 산 어른보다 더 정확히 알 것입니다. 문제는 아기가 느끼는 사랑뿐이 아닙니다. 우주의 좋은 기운을 어미의 품 속에서 삼칠일을 받아들이고 아이와 병원에서 보호 받으며 세상을 만나는 아이와 그 심성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겠습니까.

비유가 이상했는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우주의 좋은 기운과 어미의 따뜻한 사랑을 온 몸으로 느껴야 할 고귀한 자유를 억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귀한 인연이 출생부터 잘못 걸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응의 심덕보다 거역의 심성을 미리부터 배우게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자라나는 환경도 매우 전후적이고 적자생존의 각박한 현장의 긴장

이 옷을 겹겹이 입어 몸을 가렸는데 요즘은 여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벗으려고 애를 쓰고 남자들은 넥타이로 목을 바짝 졸라매고 다닙니다. 이것이 문명시대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죄가 우리 사회를 망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복뿐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나 거주하는 공간도 모두 문명의 영향으로 인성을 해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 변화를 자유로이 받아들이고 누리지만 그 뒤에서 싹트는 죄업의 씨앗을 걱정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자람 없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후손에게 무엇을 전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라 합니다. 백년후의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처럼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를 말로만 한다면 슬픈 일이겠지요. 그들에게는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향수조차 없을테니까요. 그 후손들은 우리 것이 좋다는 인식마저 안해도 되게끔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자유 속에서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더이상 굴절된 자유를 먹으며 죄악의 그림자를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법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8  
김성구  
반아심경과 물리학 25

경전에서 말하는 색과 공을 물리학적 으로 살펴볼 때 공을 물리적 진공으로 생각하면 진공중에서 입자-반입자의 쌍이 생겨나고 입자-반입자의 쌍이 소멸되어 진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현대 물리학에서도 색과 공은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전은 아예 공 가운데 색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즉 '시공공중 무색'을 우주 전체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자론이건 상대론이건 모두 색과 아(我)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我)'에 집착하는 한 아도 있고 색도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이 비록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아상은 탄생을 갖는다. 전생이 있던 '아'는 시작과 끝을 갖는다. 그렇다면 색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일까? '시공공중 무색'이라는 말을

던 것이다. 상대론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마저도 정상우주를 믿고 있었다. 자신의 이론으로부터 정상우주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없게되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을 수정하여 정상우주에 관한 답을 이끌어 낼 정도로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모두 정상우주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프리드만의 이론이 맞다면 이 이론을 거꾸로 생각할 때 우주는 150억년전쯤에는 우주가 하나의 점에 불과하였다. 이 점을 열거를 열거 된다. 우주란 물질 뿐만 아니라 시공간 전체를 뜻하는 것이므로 150억년 전 어느 순간 하나의 점(點)으로부터 시공간과 물질이 나타났다는 뜻이 된다. 이 점의 크기는 원자(原子)의 크기를 일억분의 일로 쪼갠 것을 다시 일억분의 일로 세번쪼갠 것만큼 작은 것이므로 크기가 없는 글자 그대로의 점이라고 생각해도 큰 잘못은 없다.

정상우주에 관한 답을 이끌어 낼 정도로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모두 정상우주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프리드만의 이론이 맞다면 이 이론을 거꾸로 생각할 때 우주는 150억년전쯤에는 우주가 하나의 점에 불과하였다. 이 점을 열거를 열거 된다. 우주란 물질 뿐만 아니라 시공간 전체를 뜻하는 것이므로 150억년 전 어느 순간 하나의 점(點)으로부터 시공간과 물질이 나타났다는 뜻이 된다. 이 점의 크기는 원자(原子)의 크기를 일억분의 일로 쪼갠 것을 다시 일억분의 일로 세번쪼갠 것만큼 작은 것이므로 크기가 없는 글자 그대로의 점이라고 생각해도 큰 잘못은 없다.

# 문명발달 순응보다 거역의 심성 강해 방종 초래 온 몸이 함께 아프듯 한곳 병들면 사회전체 고통

누리기 위한 불자들의 노력은 우선 소자유를 완성하는데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자유나 대자유니 하는 구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편의상 구별해 봅시다. 소자유는 이 인간의 몸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올바르게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의 법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벗어 던지지 말고 인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남의 잘못을 일깨워 주고 남의 고통을 나눠 가지는 것 이런 일들이 소아의 소자유를 완성시키는 덕목을 이룹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잘 지키며 인간다운 면모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대자유를 얻게되고 내가 속한 사회 즉 대아도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곳을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니 극락은 우리가 자유라는 보약을 제대로 쓰는 곳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본래진면목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승성을 간접한 것과 자동적인 것에 의존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어찌보면 그것이 인간과 본래진면목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란

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흥흥해 지는가를 곰곰히 생각하다가 나는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좀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나의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지극한 정성으로 갓난아이를 보호했습니다. 물론 의학이 요즘만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을 치고 사람들을 함부로 출입 시키지 않고 극진히 보살폄던 것입니다. 삼칠일을 그렇게 악연을 삼가하며 극진히 돌본 뒤에야 이 세상 사람이 그 아이를 볼 수 있게 했는데 요즘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품이 아닌 병원의 손에 넘겨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영양을 공급 받으며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병원은 산모조차 아기를 마음대로 볼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른다지만 어미의 따뜻한 품에서 어미의 젖을 먹으며 극진히 보호 받는 것과 직업인들의 계산에 따라 보호받는 것, 둘 중 어느것에서 아기는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진리가득한 영산회상에서도 발심 없으면 밤중 절벽끝에 선 풀이니 참자유 서원 세우십시오”

으로 가득 찬 곳이니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다고 아이를 옛날 방식대로 키우야 한다는 억지는 함당치 않겠지요. 우리 사회가 순응의 덕성과 참된 자유로 가득하면 될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주어진 자유를 잘 못 사용하면 죄를 납니다. 모든 것이 자유니까 배꼽타라든가 초미니스커트와 같은 것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아가씨들이 늘어나지만 누구하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잘못된 것이어서 청소년들의 범죄실리를 자극하고 실제로 어린 나이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스게 소리갈지만 옛날엔 여자들

의 자유가 방종으로 물들면 후세에는 방종이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생명을 죽이고 거짓 생명을 참생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극락계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음식이 우리를 개인과 우리 사회라는 대아를 고루 살찌우게 하여 마침내 대자유의 나라 극락정토를 이루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하고 열악으로 잠든 한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도 한 번의 발심이 없으면 캄캄한 밤중의 절벽끝에 선 풀이니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150억년전 우주탄생설 물리학자들 '동의' 우주 點서 계속팽창 '시공공중 무색' 증명

역으로 해석하면 공(空)중에는 색(色)이라 할만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색을 본다면 그렇게 보이는 색은 '아'가 공 가운데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이 된다. 물리학적 으로 풀이하면 물질과 시공간이 함께 진공중에서 나왔다는 뜻이 된다. 물리학자들은 실제로 물질과 시공간이 함께 진공중에서 홀연히 출현하였다고 믿는다. 물질과 시공간 모두가 어느 순간 탄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있다. 이른바 우주의 탄생과 기원에 관한 대폭발 모형이다.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상대론 이론이 발표된 지 몇 년 후 프리드만(Friedman)이라는 물리학자가 우주의 모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풀어 답을 얻었더니 우주는 종선이 팽창하듯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으며 거리가 멀수록 비례하여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답이 나왔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우주는 결코 안정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안정된 우주를 물리학에서는 정상상태(stationary state)의 우주라고 부르는데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정상우주를 믿고 있었다. 우주의 크기는 일정하고 이 일정한 크기 내에서 질서있게 별들이 움직인다고 믿었

프리드만의 이론이 나온 후 7년쯤 되었을 때 허블(Hubble)이라는 천문학자가 은하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하였다. 은하계는 실제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례하여 더 빨리 멀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측사실이 있는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주가 한점으로부터 폭발하여 그때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있었고 물질이 생겨났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더 많은 관측사실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더 많은 관측사실이 있다. 프리드만의 수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고 나아가 우주가 한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면 예견될 수 있는 물리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이 앞서 말한대로 대폭발 모형인데 이 모형에는 여러가지 모델이 있고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론과 실험 모두에 걸쳐 우주는 대략 150억년 전쯤 시간과 공간도 물질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탄생하였다는 사실에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시공공중 무색...”이므로 진공에서 색이 출현할 수도 있으나 이 색도 결국엔 무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화대 교수·물리학과)

중국명문 한의대  
고급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 기간 :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침치료, 기공등
- 연수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수료증 수여
- 인원 : 15명 이내
- 출발일 : 1996년 11월 1일 (금)
-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화 : 02)511-2026~8

-우학스님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이 시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인고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수행 의식집)
-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아심경·법성계·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이타경)
-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광역시 염불선원  
祖室 晚悟堂 壽山大和尚 世緣已盡  
10월 1일(음 8월 19일) 오전 6시  
於念佛禪院入寂 慈以訃告  
佛紀 2540年 10월 1日  
大邱廣域市 무학산 염불선원  
대한불교 조계종 大邱廣域市 무학산 염불선원  
부도일동 합장

永訣日時 佛紀 2540年 10월 5日 11時 30分  
(음 8월 23日)

永訣場所 大邱廣域市 무학산 염불선원  
茶毘場 大邱廣域市 市立 茶毘場(화장장)  
晚悟堂 壽山大和尚 寺院연합회장 장의위원회  
住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578

염불선원  
전화(053)7820120